

인도네시아 산림연수를 다녀와서..

(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충청북도지회장 이 경 용



2010年 10月19日 기대에 부푼 가슴안고 새벽 이슬 맞으며 도착한 인천공항. 산림청 함흥식 사무관님과 낯설지 않은 임업인들을 만나서 사무관님의 인솔하에 방향도 모른채 일곱시간여 만에 신혼여행지로도 널리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발리라고 하는 첫 목적지에 안착, 6일간의 짧고도 긴 임업인 정책연수 여행이 시작 되었다.

발리섬은 제주도 면적의 세배에 인구 200만명의 아름다운 섬 도시 이다. 열대성 기후로 인하여 말 그대로 국내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듯 하였다. 장시간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며 숙소에 여장을 풀고 일행들은 소주한잔 걸치며 먼 이국땅에서의 색다른 기후 이야기로 부터 나름대로의 산림에 대한 서로의 경영 철학을 전수 시키기는 모습이 마치 모두들 임업 전문 교수가 된듯 하였다.

다음날 모든 일행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쪽 뻗어있는 야자수 숲과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며 근처에 위치한 골프장도 눈여겨 보고 숙소앞 아담하게 꾸며진 연못을 중심으로 갖가지 이름모를 수목들이 나름대로의 재 빛깔을 뽐내며 바다와 잘 어우러진 풍경이 말 그대로의 아름다운 섬나라 발리를 알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 였다. 조식후 전용 차량으로 휴양지인 도시 숲 가로수를 견학하며 도착한 울루와뚜 절벽사원 원숭이 숲을 거닐며 마치 동물의 왕국 드라마를 보는듯 희귀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멀리 펼쳐져 있는 바다의 멋진 풍경과 인도네시아 국토의 80% 라고 하는 임야를 감상 할 수 있었다.

그곳은 마치 밀림이 아닌 목장 용지와 흡사한 늪지대 인듯 하였다. 그로 인한 타인지 온 사방을 살펴 보아도 강은 강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진한 황토빛 물로 가득차 있었고, 맑은 물은 바닷물을 제외 하고는 찾아보지 못 할 정도였다.



이 세상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드높고 파란 너무나도 고운 KOREA. 우리들의 지혜로운 조상님들은 일찌기 천혜의 땅 위에 터전을 잡아 주시고 맑은 물, 맑은 공기에 봄이면 새싹을 틔우고, 가을이면 오색 단풍들며, 가는 세월 아쉬운듯 겨울이면 하얀 눈 내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을 아낌없이 선물하여 주셨 습니다.



산림청의 지대한 노력 발전에 힘입어 산림녹화를 짧은 기간동안 성공을 시킨 대한민국의 사례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위대한 산림부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독립가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정성도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 또한 임업인들의 한 많은 산림 경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저녁 늦게 한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족자카르타에 도착, 여장을 풀게 되었다.

다음날 뿌람바난 사원 및 말리보보로 거리 왕궁등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드로 불교 사원을 관광하며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여년 전에 지진으로 인하여 일부 붕괴된 건축물을 당초 설계 도면도 없이 단지 인력만에 의존하여 복원 작업 하는 모습에 역사 전문가의 위대한 노력에 절로 머리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다. 또한 이날 강렬한 자외선과 무더운 날씨에 지친몸을 이끌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한시간 비행 끝에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국내에서 공수해온 소주에 피로함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다.

10月22日 어김없이 찾아온 환한 세상의 강렬한 햇빛을 맞으며 자카르타 자바섬에 위치해 있는 열대 양묘장 립핀센터를 방문, 친절히 맞이해 주시는 산림청 현지 홍창원 서기관님의 안내를 받으며 현지 토양및 기후에 적합한 씨앗으로부터 배양 연구되는 열대수종인 민디와 생은의 성장 과정등 묘 포장관리를 연구 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더운 이국 땅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의 맺가가 산림청의 무궁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을 가져보는 기회도 되었다. 일정이 짜여진 대로 숨가쁘게 자리를 이동하여 시내를 거슬러 확 트인 도로를 한시간 30여분 만에 중간 착지에 도착 하고 우리나라 에서는 폐차장에 갈 정도의 연식도 모를 정도로 노후된 승합차에 몸을 싣고 보고르와, 자카르타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산림조합 중앙회 조림지를 현지 성은경 법인장님의

회원기고

안내를 받으며 좁고도 험한 비포장 길을 주행하며 원주민들의 야자수 숲속에 원두막 같은 시설의 주거 생활상등, 철부지 어린 아이들의 새카만 피부에 반짝이는 눈동자가 우리에게 환영의 표시 인지 손을 흔드는 모습에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되었을까? 뿌르와 까르타 푸룩잠베 현지에 도착한 산림조합 중앙회 조림지를 견학하게 되었다. 산림사업 계획면적 1만ha의 광대한 면적속에 1차 금년 2월달에 식수되었다는 834ha의 면적에 처음 들어보는 6m 정도 수고의 민디와 생온, 그 사이로 질서 정연하게 심어놓은 야자수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신기함을 느끼며 한참동안 우리나라 장기수와의 차별점을 확연하게 비교할수 있었다.

초가 지붕위의 호박 넝쿨이 하루하루 다르게 뻗어 나가듯 현지의 그 수목들은 지금도 눈에 보일 정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겠지.....

우리나라의 40~50년의 별기령에 비하면 8년여 만에 벌목 생산 된다는 사실에 우리 임업인 들은 한참을 멍하니 입을 막히게 하였다. 해가 저물어 두번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았던 그 낡은 승합차에 지친몸을 의지하며 다시금 드라마가 아닌 현지와와 낙후된 생활상을 접하며 가난에 찌드러진 그들 모습에 연정을 느끼게 되었다. 대로에 접어들어 대형 버스로 갈아타고 일행들과 대화하며 오는 도중 고품이신 문대성 전북 지회장님이 한참을 생각에 잠기 시더니 중앙회 성은경 법인장님 에게 희망이 가득찬 목소리로 현지에 얼마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주거지 구입과 산림사업을 병행할수 있겠느냐 물어 보신다. 돌아오는 답변은 현지의 200~300ha 정도의 산림 면적 사업 경영은 사업성이 희박 하다는 법인장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곳까지 와 무슨....." 마치 체념 하신듯 바깥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다. 많은 생각에 잠기셨으리라.....

캄캄한밤 자카르타 수도 야경을 감상하며 도착한곳은 한인이 운영 한다는 식당(수라청)그 곳에서 산림청 이규태 부이사관님과 홍창원 서기관님을 만나면서 시장기를 달래며 국내외 산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고견을 듣게 되었다. 전 세계의 관심사인 탄소 배출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젊은 황기주 박사의 산림의 중요성도 경청하며 정보교환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동행한 일행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편이다. 그래도 내 나이 환갑을 바라보는 결코 적지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여 용기를 내어 산림청 관계자 분들께 평소의 산림 경영 철학을 전하는

기회도 되었다. 지금은 야영장 및 팬션등을 건설하는 일부 산림의 훼손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부터 일부 산림청 정책에 역행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평소 주장하고 바라고 있는 희망을 전하게 된다. 우리 독립가들은 독립된 주무장관 없이 농림수산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부로 발전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산을 관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산에서 배출되는 맑은 산소 공급등 무한한 공익적 가치는 임업인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각인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말이다.....

평생을 가꾸어 온 산지의 미래목들이 녹음을 드리우며 울창한 숲을 사회에 제공할 때 산림청의 중심에는 마땅히 존경 받아야 할 독립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생 희망과 꿈을 안고 불꽃같이 살다가 이슬같이 사라져 가는 헛된 세월 헛된 인생이 아니길 기원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를 마칠수 있었다.

10月23日 마지막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산림부를 방문하여 이규태 부이사관님 으로부터 한,니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책에 대해서 용어도 모른채 청취하며 동감을 표시 하였다. 다가오는 11月 11日 G20 정상들이 서울에 운집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탄소 배출들 기후 변화에 따른 논의도 관심있게 다룬다고 한다. 그렇다. 이제는 먹고, 자는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전 세계가 걱정할 때라고 생각 한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 에겐 뚜렷한 목적지가 없듯 자신이 어느길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평생을 심고 가꾸어온 임업 경영 철학을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후손 들에게 자신있게 권유 할만한 희망찬 미래가 있다고 권해야 할지, 걱정도 앞선다.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모나스광장 독립기념탑등 시내 관광을 두루 거치며 도착한 평양관 북한식당 고운옷을 입은 북한 여성들이 평양식 냉면으로 입맛을 돋우어 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가요로 분위기를 고취 시킨다. 시간에 쫓겨 자리를 뜨자 이별이 아쉬운듯 "잘 가세요, 또 만나요"란 그 목소리에



회원기고

순박한 동포애를 느끼게 되었다. 이국땅 에서의 물같이로 인한 탓인지 배탈 및 이동중에 이탈등 약간의 문제점은 발생 되었지만 별다른 사고없이 함흥식 사무관님의 인솔에 적극 협조하여 6일 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늦은시각 도착한 자카르타 공항.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정성들여 심고 가꾸어온 나무들 생각을 떠올리며 장시간 비행기에 지친몸을 맡기고 하늘을 나른다.

산림청의 중심에는 항상 독립가 여러분들이 계시어 맑은 공기와 미래의 울창한 숲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유익한 여행을 통하여 우리 독립가 협회에 큰 신뢰를 보내 주신것 처럼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변함없이 보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8년여 만에 수확 벌채 된다는 민디나무야! 무럭무럭 자라서 거목이 되어 있을시기 2019年 꾸타보하찌 산림중앙회 조림지 현장을 다시견학하여 옛 사진과 비교 분석하는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해 본다.

함흥식 사무관님의 인솔하에 무사히 도착한 새벽 인천공항. 알찬 여행을 주선해 주신 산림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 드리고 한국 경영인 협회 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동행 하셨던 일행분들 여행중 좋은추억 많이 간직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신경성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 증세로 고생을 경험하니 건강이 최고다 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였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 하시고 짧은 시간 이라도 운동에 투자 하셔서 늘 생기찬 활력 유지 하시길 기원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여행을 마쳤다.